지방선거 최악의 '깜깜이 선거' 우려

세월호 참사 여파 경선 룰 등 선거일정 늦어져

후보들 인물 됨됨이·공약·정책 판단정보 부족

'세월호' 참사 애도 분위기 속에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고 정치 일정 자체가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을 위해 일할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최악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인 광주·전남지역의 경선 일정이 늦어지고 있는데다, 선거운동 중단으로 후보의 인물 됨됨이는 물론 공약과 정책 등 유권자들이 변별할 수 있는 판단 근거가 불충분할 수 있기 때문이다.

2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 후보들은 확정됐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직까지 모두 미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선거가 임박했는데도, 광주시장 공천방식을 확정하지 못하면서 정책과 인물을 검증할 수 있는 경선 후보자 토론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경선 룰은 지난 26일 100% 공론조사로 확정됐지만, 국회의원 선거구 유권자 기준 0.3%의 소수 배심원단으로만 후보를 결정하기로 해 지역 여론을 모두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특정 광주시장 경선 후보를 지지한 광주지역 5명 국회의원들의 공천관리위원회(이하 공관위) 활동에 대한 공정성 논란까지 일면서 경선 일정도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전남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사 경선에 참여한 일부 후보들이 '당비 대납'논란에 휩싸이면서 경선 일정이 제대로 진행될 지 의문시 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옛 민주계의 박소정 공동위원장 임명 철회 건의 파문에 이어 뒤늦게 시작한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내면서 제대로 경선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이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선 일정이 늦어지고, 세월호 참사 이후 선거운동이 전면 중단되면서 예비후보들은 유권자에게 정견이나 공약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지역 정가에서는 이런 분위기 속에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역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지방의원 경선일이 모두 다음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달 15일 후보 등록이 임박해서야 공약 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은 후보의 공약도, 후보의 됨됨이도 모른 채 분위기에 휩쓸려 투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으로 4년 동안 도민, 시·군민을 대표하는 일꾼을 뽑기 위한 후보들을 검증하고, 이들의 정책과 공약도 점검할 수 있는 장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애도 분위기 속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적어도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 발표는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소한 언론을 통해 공약·정책이 소개되고 이를 검증하는 틀이 마련돼야 한다는 얘기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여야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

내일 국회 본회의…'기초연금' '세월호 재발방지법' 등

세월호 침몰 사고로 사실상 문을 닫았던 국회가 참사 발생 2주만인 이번 주부터 정상화 수순에 들어간다.

앞서 여야는 원내 지도부 간 협의를 통해 대형 안전사고 재발 방지와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이번 주부터 국회를 정상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관련 상임위나 소위를 통과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이나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 '수난구호법', '해사안전법', '항로표지법' 개정안 등 해상안전 관련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들 법안 외에도 대형 안전사고 예방과 학교 안전강화를 위해 후속 대책을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강구할 방침이다. 일부 상임위는 소관 부처가 여전히 세월호 사고수습으로 경황이 없는 데다 29일 본회의까지 시간이 촉박해 여야는 5월 초에 추가로 본회의를 열어 계류법안을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여온 기초연금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여야는 기초연금법 처리에 합의하면 기초연금법을 포함한 새누리당의 이른바 '복지3법'과 새정치연합의 '세모녀 자살사건 방지법안'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안도 일괄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여야는 국회 정상화와 함께 이번 주부터 6·4지방선거에 출마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당내 경선도 재개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 새누리당은 29일 대구·충남을 시작으로 30일 부산·대전·강원, 다음달 9일 인천, 10일 경기, 12일 서울을 끝으로 당내 경선을 마무리한다. 새정치연합은 29일 부산을 시작으로 30일 경남, 다음달 11일 경기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을 치른다. 광주·전남·전북의 경선일정은 아직 잡지 못했다.

/박지경기자jkpark@kwangju.co.kr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 천호선 대표(가운데), 심상정 원내대표(왼쪽에서 두번째) 등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상무위회의에 앞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정치 전남도당 공천 '불협화음'

광역·기초의원 공모 서류 이틀만에 준비 지시

옛 새정치 계열 후보들 "민주계 꼼수다" 반발

"새정치민주연합 전남지역 광역·기초의원 공모 서류를 이틀 만에 준비하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없는 옛 새정치 계열 후보자들은 아예 접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이 옛 민주계의 박소정 공동위원장 임명 철회 건의 파문에 이어 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서류 접수 기간이 너무 짧아 옛 새정치 계열 일부 후보들이 "민주계에 유리하게 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고, 박 공동위원장도 추가 접수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남도당은 "지난 25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도당 지방의원(광역·기초의원) 공직선거후보자 공모 공고를 내고, 오는 29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 공고가 25일 오후 6시께 발표됐고, 서류를 뗄 수 없는 주말과 휴일(26~27일)이 겹쳐 사실상 공모 기간은 단 이틀(28~29일) 뿐이어서 일부 후보들이 서류 접수에 애를 먹게 됐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주민등록등본, 최종학력증명서,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 병적증명서 등 15가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최근 5년간 세금 납부·체납증명서 등 일부 서류는 발급받는데 시간이 걸린다.

새정치 계열 한 출마 예정자는 "세금 납부·체납증명서 발급은 경우에 따라 이틀 이상 걸리는데, 이렇게 '기습 공고'를 내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새정치 계열은 서류 접수도 못하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현재 전남지역 옛 새정치 계열 지방의원 출마예정자는 70~80여명으로 추산된다.

이에 박소정 공동위원장은 "짧은 일정 탓에 서류 접수를 하지 못한 후보들을 위해 추가 접수를 받는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새정치' 간 갈등은 앞선 박 공동위원장의 인선 과정에서도 불거졌었다. 옛 민주당 계열인 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이 박 공동위원장의 임명 철회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해 새정치 계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지난 23일 박 공동위원장의 인선이 마무리되고, 집행위원회 위원도 확정됐지만 박 공동위원장은 27일 현재 전남도당에 출근하지 않고 있으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위해 첫 집행위 회의도 27일 여는 등 '민주-새정치' 간 융합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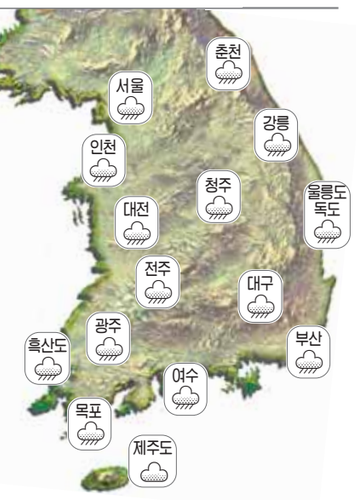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45분 해짐 19시 15분 달뜸 04시 57분 달짐 18시 17분

진도해상 '파도 높음'

흐리고 비오겠다.

광 주	비	14/18℃
목 포	비	14/17℃
여 수	비	13/16℃
나 주	비	14/17℃
완 도	비	14/18℃
구 례	비	13/16℃
강 진	비	14/17℃
해 남	비	15/18℃
장 흥	비	14/18℃
순 천	비	13/16℃
영 광	비	14/18℃
진 도	비	15/18℃
전 주	비	12/17℃
군 산	비	12/18℃
남 원	비	12/16℃
흑산도	비	13/15℃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동~남	1.0~2.0m
먼바다	남동~남	2.0~4.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1.0~2.0m
먼바다	남~남서	2.0~4.0m

식중독지수	감기지수	뇌졸중지수
주의	보통	보통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1.0~2.0m
먼바다	북동~동	1.5~2.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서~서	1.0~2.0m
먼바다	남서~서	2.0~3.0m

	밀물	썰물
목포	01:19 13:35	06:36 18:53
여수	08:29 20:52	02:10 14:2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9(화)	30(수)	5/1(목)	2(금)	3(토)	4(일)
날 씨						
최저/최고	14/18	12/24	10/26	10/27	12/24	11/25

나주 혁신도시
상가분양 및 임대
이 상가 빌딩은
고객의 마음을 담은
기술이 숨어 있습니다.
위치/가격/디자인/편리성
넘버원 빌딩!
다성빌딩 지하 1층~지상 6층(임대)
한빛타워 지하 1층~지상 8층(분양)
킴스타워 지하 1층~지상 5층(분양)
나주 솔로몬 공인중개사
주식회사오늘
분양·임대문의 ☎ 061-333-7077
H. 010-3505-8005 / 010-5587-3080
전남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354-32(우정사업본부 후문 방향)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모텔/투룸/전원주택
◦나주시 송월동 신축 무인텔 4층 대지 1,152㎡ 건물 1,882㎡(20실)현재 성업중 매 31억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모텔, 식당, 주유소, 대지 7,547㎡ 환경 교통양호 매매 15억
◦나주시 남내동 투룸 16세대 대지 390㎡ 건물 660㎡ 매11억
◦나주시 다도면 초등학교 부근 나주호 앞 3층 전원주택 대지 655㎡ 편백나무 2,560㎡매 7억
전/대지/과수원
◦나주시 송월동 대지 495㎡ 4차선대로 코너 매 3억9천만
◦나주시 관정동 답 매립지 7,547㎡ 2차선 도로변 옹벽설치 매 3억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인근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전(일부 대지 포함)21,000㎡ 2차선 도로변 혁신도시 인근 계획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2차선 돌변 배 과수원(일부 대지포함) 7,550㎡ 매매 5억6천만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배 과수원 7,252㎡ 냉동창고 포함, 생산관리지역, 2차선 도로인근 매매 2억 5천만
◦나주시 왕곡면 양산리 전 7,603㎡ 2차선 도로변, 4차선 도로 예정 계획관리지역 매매 3억8천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주택 및 전 2,310㎡ 매매 2억2천만
◦영암군 신북면 모산리 전 63,310㎡ 4차선 국도변, 계획 관리지역 매매 15억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740
☎010-9510-1150, 061)333-1150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양덕 유 재 관
급히구합니다
1)빌딩 : 현금8억,15억,30억 손님 각각 대기중 바로 계약들어갑니다
2)상가 주택 : 현금2억보유자3명, 현금5억보유자7명대기하고있습니다
3)점포 : 뷔페식당1명,갈비집3명,중화요리2명, 패션의1명, 노래방2명등 많은분들이 대기중입니다
다음카페[즐거운부동산세상]을 클릭 해 보세요!
즐거운부동산세상
급매부동산,개발정책,생활법률,취득양도관련 세금유명의료전문가들의 강좌등 다양해요
[급 매]
1)충장로 원룸대165㎡ 급매2억7,000(보증1억 월510별도) 월14%대 수익
2)롯데백화점인근 모텔 대236㎡건185㎡ 룸25 급매7억원(건축비도안돼요)
3)예술의 거리 입구 대188.4㎡ 4층 건물 매2억9천(보6천 별도)감정가 4억4천
이밖에도 많아요=맞춤 서비스합니다
[급 임 대]
1)식당1층33㎡ /66㎡/120㎡ 등[최고요지]급매물 확보중
2)다용도및사무실 대로변1층,지하,3층,10층등 평수별,금액별 좋은 매물 다량보유중입니다
3)원룸,투룸=즉입,싸고,깔끔한 매물 다량 보유
부동산이라면 지역,종류,금액 상관 없이 무엇이던지 연락주세요 7일이내에 [가부명시]처리하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부자되세요♡
동부소방서4거리(대인동312-1)
☎010-6495-3787/직통062)229-0088

년6억 收益
모텔 최고급 시설, 지역 독점상권
월매출 8천만원 · 지출 3천만원
장부오픈, 확인 후 계약가능
대지 6,600㎡, 건평 2,192㎡
객실 48개, 지하수 , 심야전기
매가 33억(융 15억) 현금 18억
(가격절충 불가, 부동산 사절, 실수요자만)

문의전화 010.5188.5515